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오승연 연구위원, 안소영 연구원

-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생애주기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기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며, 경제활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은 건강증진정책의 핵심적 인구집단임
 - 개인의 건강생활습관은 사회의 문화, 규범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큰 직장단위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문화의 확산이 지역단위 인구집단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임
- 건강행태 측면에서 남성 근로자는 성인 남성보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음
 - 남성 근로자의 흡연과 고위험음주 비율이 성인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서비스업과 감정노동의 증가로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대두됨
- 전통적으로 사업장의 보건은 광물, 건설, 제조업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건강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
 - 현재 건강증진정책의 주요 단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이며, 학교나 사업장의 경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 서비스 업종의 증가, 근로자의 고령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보건의 패러다임이 '직업병 예방'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 직장인의 건강은 보험산업에도 중요함
 - 직장인은 보험의 주요한 수요 계층이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직장인의 건강증진은 건강리스크의 증가에 대응한 보험금 지급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정부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민간차원의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업과 보험회사가 협력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는 장기적 시계가 필요하며,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기,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각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함
- 경제활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은 건강증진정책의 핵심적 인구집단임
 - 예방적 건강관리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의 건강생활습관은 사회관계의 문화, 규범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음
 - 지역단위 사회관계와 비교해서 직장 내 상호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장단위의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문화 확산은 훨씬 효과적일 것임
- 실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약 75%가 임금근로자이며, 이들의 건강증진은 건강한 노동능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도 중요함
- 본고에서는 직장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의 특징,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건강증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통해 향후 과제를 논하고자 함

2. 직장인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 임금근로자에게서 발병빈도가 높은 질환은 근골격계질환¹⁾과 뇌·심혈관질환임
 - 산재보험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질병 중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된 작업 관련성 질환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음²⁾

1) 근골격계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함
 2) 고용노동부(2014), 산업재해 공식통계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질환자 및 고혈압·당뇨의심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³⁾

■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직무 중 스트레스를 대부분 또는 항상 느끼는 근로자 비율이 남성 26.5%, 여성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⁴⁾
- 산업구조가 제조업, 건설업 중심에서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한 결과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커지고 있음

■ 건강행태 측면에서 보면 남성 근로자는 성인 남성⁵⁾보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음

- 남성 근로자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이 성인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흡연율에서 남성 근로자와 성인 남성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율은 격차가 감소하다 2015년에 다시 벌어짐

〈표 1〉 남성 근로자와 성인 남성의 건강행태 비교

(단위: %)

구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재 흡연율	남성 근로자	51.7	51.7	50	45.2	45.6	45.7	39.7
	성인 남성	47.8	48.3	47.3	43.7	42.2	43.2	39.4
고위험음주율	남성 근로자	26.8	24.6	24.2	22.3	21.2	20.3	22.5
	성인 남성	24.5	22.0	23.2	21.9	19.7	20.7	21.2

자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근로자건강증진(<http://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0819&siteId=null>);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3) 고용노동부(2016), 『2015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4) 통계개발원(2013), 2011년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5)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표준화된 수치임

3.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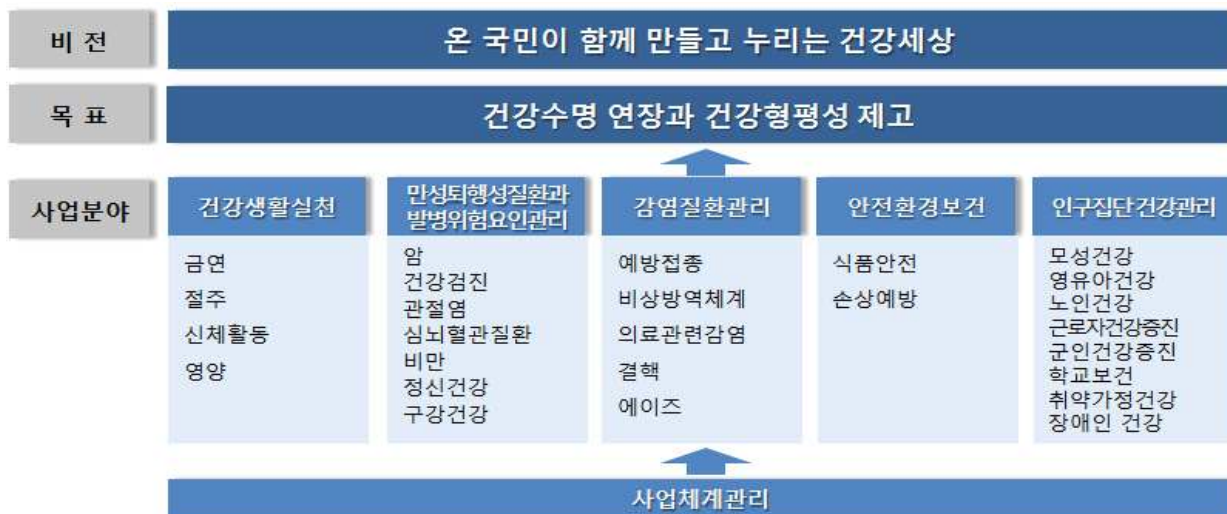


가. 정부의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 정부의 직장인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정책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⁶⁾의 인구집단 건강관리에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인구집단을 모성, 영유아, 노인, 근로자, 군인, 학교, 취약가정,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건강증진정책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지자체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림 1〉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기본 틀



자료: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뇌·심혈관질환자 수 감소와 정신건강 유지·증진을 목표로 삼고, 구체적 사업으로 사업장 건강증진 운동 활성화와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6)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로드맵임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활성화 사업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자발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자율신청 사업장 및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직종)에 대해 건강증진 관련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컨설팅, 교육, 기술정보 자료를 제공함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연합체)의 동 활동 실천에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
 -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하여 현장평가 및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함
 - 사업장 건강문화 확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5가지 활동(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을 선정하고 TV, 일간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함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를 운영함
 -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건강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고 작업환경 및 개인질병 유해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등에 설치하여, 직업병 등 질병상담 및 직무스트레스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안심일터”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근거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산재보험에 가입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함
-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 예방 활동을 추진함

〈표 2〉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목표(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단위: %)

사업목표	지표 명	2008	2013	2020	사업 명
근로자의 육체적 기초건강 증진을 통한 뇌·심혈관 질환자 수 감소	남성 근로자의 현재 흡연율	51.70	45.60	30	가. 사업장 건강증진 운동 활성화 나.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운영
	남성 근로자의 고위험음주율	26.80	21.20	20	
	근로자의 고혈압 유병률	21.80	22.90	21	
	근로자의 비만(25kg/m ² 이상) 유병률	30.30	31.70	30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사망률	3.60	2.30	3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증진	근로자의 우울증상 경험률	11.30	7.40	7.00	

자료: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그 외 사업장 대상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강도시사업이 있음

- 서울시는 건강도시사업을 통해 마을, 아파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를 건강리더로 육성하여 자신이 속한 사업장에서 건강생활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도록 독려함
- 시범사업으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건강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체력단련기구를 직접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기업 CEO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장 내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에 배치된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이 있음

나. 평가

■ 현재 건강증진정책의 주요 단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이며, 학교나 사업장의 경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 학교와 직장보건의 경우 건강증진사업의 총괄부서가 학교는 교육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관할하에 있음
- 건강증진사업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외에 정부 내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의료와 시민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⁷⁾

■ 고용노동부의 건강사업은 작업환경 개선 및 그에 관련된 질병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줄이는 건강생활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대상 건강증진 사업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원 마련이 어려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이를 통한 민간부문의 건강증진사업 참여 확대가 요구됨

- 현재 민간기업의 건강증진사업 참여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준에 있음

7)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건강증진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계하는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전략이 미흡함
-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도 공중보건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4. 직장인 건강과 보험



■ 직장인은 보험의 주요한 수요계층임

- 건강 관련 종목인 질병보장, 실손, 사망보험에서 화이트칼라의 보험가입률이 높음

〈표 3〉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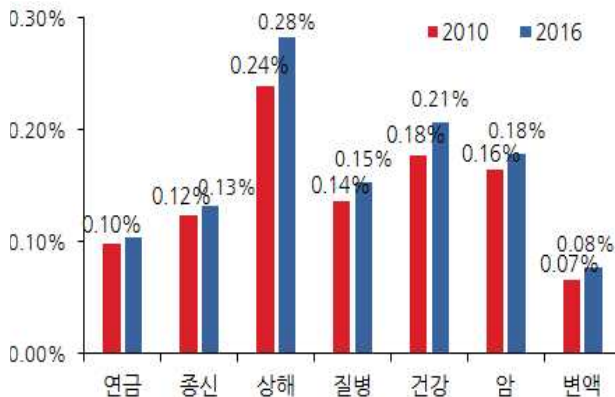
특성별	표본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저축성 보험	간병 보험	어린이 보험	생보 전체 가입률
전체	(2,200)	63.4	26.5	18.7	15.7	12.4	5.0	4.2	1.9	1.5	78.2
직업	화이트칼라	(580)	64.8	33.6	27.8	17.6	17.8	6.9	5.2	0.7	85.7
	블루칼라	(611)	62.0	24.2	14.2	13.7	12.9	3.1	4.6	2.6	75.8
	농·임·어업	(95)	45.3	7.4	15.8	10.5	2.1	0.0	0.0	2.1	53.7
	자영업	(396)	71.5	29.0	25.0	17.4	12.6	6.6	2.0	2.5	86.1
	주부	(409)	67.2	22.7	10.3	16.6	9.0	5.6	6.1	1.7	75.8
	은퇴자	(19)	26.3	10.5	10.5	5.3	0.0	0.0	0.0	5.3	36.8
	학생	(59)	33.9	27.1	6.8	8.5	0.0	1.7	1.7	0.0	57.6
	무직/기타	(31)	41.9	19.4	3.2	19.4	3.2	3.2	0.0	6.5	54.8

자료: 보험연구원, 2017 보험소비자설문조사

■ 민영건강보험은 다른 보험종목과 비교해서 사망사고율의 증가가 큰 편이며, 질병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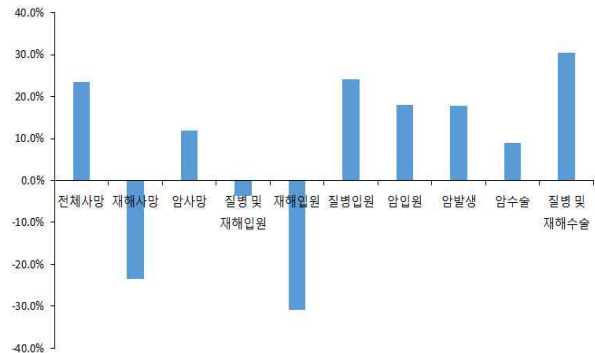
- 건강보험(상해, 질병, 건강, 암)의 사망사고율 증가가 연금, 종신, 변액보험과 비교해서 큰 편임
- 민영건강보험의 담보별 사고발생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해로 인한 사고 건수(사망과 입원 건수)는 감소한 반면, 암과 질병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증가하였음

〈그림 2〉 보험종류별 사망사고율 변화(2010, 2016)



주: 담보별 사고발생 건수 변화율은 2010년 대비 2016년 증감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각 연도

〈그림 3〉 민영건강보험 담보별 사고발생 건수 변화율(2010~2016)



■ 한편, 근로자의 상해와 질병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체가 가입하는 직장인 단체보험에서도 질병담보의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해보험의 손해율은 FY2010년 64.7%에서 CY2015년 67.6%로 소폭 상승한 반면, 단체상해보험의 손해율은 2010년에는 52.8%였던 것이 2015년 86.2%로 30%p 이상 급격히 상승하였음⁸⁾
- 단체보험 중 가입규모가 가장 큰 공무원 단체상해보험의 2015년 손해율은 79.7%였는데, 위험담보별 손해율을 보면 상해보다는 질병에 의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남
 - 종합의료실비(2,691.2%), 질병의료실비(99.3%), 상해의료실비(68.4%) 순임

■ 건강리스크 증가에 대응하여 직장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에서 보험금 지급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종업원 후생복지의 하나인 직장인 단체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사망을 보상했지만, 최근에는 질병위험과 실손의료비 보장으로 확대되고 있음

8) 단체상해보험의 손해율은 보험개발원이 발간하는 손해보험통계연보(2016)의 단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저자가 직접 계산한 값임. 단체안심상해(711), 신종단체상해(712) 등 29가지 단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계산함

5. 향후 과제



■ 산업보건의 패러다임이 ‘직업병 예방’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 전통적으로 사업장 보건의 광물, 건설,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서비스 업종의 증가, 근로자의 고령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과 함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 근로자의 주요한 질병인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또한 사무직, 서비스업과 감정노동의 증가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위험이 커가고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은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장 단위의 건강증진정책이 요구됨

- 종업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건강증진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다른 인구집단보다 사업체 차원의 건강증진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보험산업은 개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데만 머무르고 있으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부와 지자체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업과 보험회사들 간의 직원 대상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다양한 방안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비교적 재원마련이 용이한 대기업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 갈 수 있을 것임 **kiri**